김 일 성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1985년 10월 11일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여 투쟁하는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인민들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해나서도록 불러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세계평화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세계에서 조선처럼 정세가 긴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중미주와 남부아프리카, 중근동지역의 정세도 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이 지역들의 정세보다 더 긴장합니다. 우리 나라 정세에서 특히 위험한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완전한 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될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나라는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하여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리자면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선사람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누구나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바라고있습니다. 오직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분렬하려고 하는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틀어쥐고 내놓으려 하지 않는것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

들도 남조선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남아있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측에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나서지 않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미국대통령 레간은 조선의 북과 남이 먼저 회담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남조선《국회》에 북남국회회담을 열데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편지에서 남조선측에 북과 남이 국회대표회담을 열든지 아니면 국회련석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북남국회회담제안은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려는것입니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북남국회회담제안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끌어오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북남국회회담을 열되 거기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이 아니라 《통일헌법》을 만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가 지금처럼 긴장한 조건에서 어떻게 북남국회회담에서 《통일헌법》을 만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북남국회회담에서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고 《통일헌법》을 만들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은 그것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남국회회담에서 의제를 단일화하여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은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새로운것이므로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은 북남국회회담의제를 단일화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그것이 구체적인것이 못되고 너무 일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시비하고있습니다. 남조선측은 우리가 국회회담의제를 구체화하여 내놓았을 때에는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의제를 만들어 내놓으니 이번에는 또 그것이 막연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3자회담제안과 북남국회회담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것은 3자회담과 북남국회회담을 통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면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구실을 잃어버리게 되기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에 《남침위협》이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만일 우리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의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남침》하지 않는다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번 천명하였으며 남조선을 공산화하거나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것도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가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평화선전을 하고있다느니, 우리의 진의도를 모르겠다느니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정당한 제안들을 외면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맡기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투쟁은 세계평화를 위한 정당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특히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남침위협》이 있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미제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 불러일으켜주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가운데는 이미 나와 만났던 사람도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에는 모두가 구면친구로, 친근한 전우로 될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각기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조선인민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할것과 우리 나라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